

꿈동산을 지켜주세요

아침부터 신이 났다. 오늘은 학교에서 예암동산에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예암동산은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산이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함께 예암동산에 올라간다. 꼭 소풍가는 것 같아서 좋다.

오늘도 우리들은 한 줄로 서서 학교 뒷마을 골목길에 걸어서 예암동산으로 갔다. 골목길에는 할머니들도 계셨다. 우리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어이, 오늘도 예암산 가는감?” 하고 웃어주셨다. 집들이 붙어 있고 좁다. 길도 꼬불꼬불 미로 같아서 재미있다. 작은 텃밭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고구마, 콩, 고추, 옥수수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집들에 개들이 “컹컹, 으르렁, 왕왕!” 하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왈왈, 크르렁, 멍멍” 하고 짖어준다. 온 동네가 개 소리로 시끄럽다.

100개나 되는 것 같은 계단을 올라가면 드디어 흙길이 나온다. 산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야호! 벌써 여수 도시가 다 내려다보인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색칠할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흙길에는 누가 심었는지 금잔화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다. 그 위로는 고추잠자리들이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었다. 새들은 “얘들아, 안녕? 환영해.” 하며 짹짹거렸다. 풀 속 길로 들어가자 상쾌한 풀 냄새가 솔솔 풍겼다. 맑은

연못의 물처럼 공기도 맑았다. 그때, 내 친구 윤재가 “어랏!” 하며 자갈길에서 미끄러졌다. 우리들은 윤재에게 모두 달려가서 “괜찮아?” 하고 물었다. 윤재는 씩씩하게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심심한 아기 돌들이 우리들에게 장난을 걸고 싶어서 뽕뽕 굴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래.”라고 말했다. “정말?” 친구들은 신기해서 내게 물었다. 돌들도, 잠자리도, 새들도, 개미도, 나비도 모두모두 우리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다.

“자, 여기에서 좀 쉬세요.”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들은 “와!” 하고 달려갔다. 어떤 친구들은 메뚜기를 잡으러 가고, 어떤 친구들은 개미집을 보러 갔다. 나는 도토리를 주웠다.

“내가 찾은 도토리 크다!”

“아니야, 내 것이 더 커!”

나와 친구들은 더 큰 도토리를 찾아오기로 내기를 했다. 나는 내 엄지손가락만한 도토리를 주웠다. 또 우리는 두더지 굴을 찾았다.

“두더지야, 두더지야! 이리 나와 봐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바다는 하늘같이 파랗고 돌산대교 밑으로는 거북선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섬과 도시도 보였다.

나는 바다도 보고, 곤충도 보고, 도토리도 줍고, 마음껏 떨 수 있는 예암동산이 참 좋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우리의 소중한 예암동산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산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한다. 이제 예암동산은 반 정

도밖에 없다. 예전에 올라갔던 높은 곳은 이미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쉼터에서 오래 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동물, 곤충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되었다. 모두 무섭고 떨어져서 땅 속 깊이 숨었거나 포크레인에 죽어버렸을까? 우리가 좋아했던 키 큰 상수리나무도 뽑혔겠지? 바다 위로 지나가는 케이블카가 생긴 뒤로 사람들이 여수에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산이야! 우리들의 예암동산이 사라질까 봐 정말 걱정이다.

난 소원이 있다. 우리의 꿈동산, 예암동산을 망가뜨리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예암동산에 여전히 어린이들이 올라와서 놀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도영

여수 봉산초등학교 1학년